

참된 생명에 이르는 지혜 5

II. 본문

13.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될 보응(잠 13:1~25)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는 내용(12장)에 이어지는 본장은 동일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단순한 반복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개념들을 다른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본장은 의인과 악인의 지혜를 대조함에 있어서 주로 하나님의 ()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다.

구조적인 특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지만, 의인과 악인의 행위를 대조하는 전반부(1~6절)와 의인과 악인의 재물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는 중반부(7~11절),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12~25절)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본장은 하나님의 공의가 정당하게 시행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복을 받고 있는 현실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욥기(21:17~26)와 하박국(합 1:12~17)의 말씀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공의가 정당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1)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13:1)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1절)

2절로부터 이어지는 아버지의 훈계를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질책성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만, 거만한 자는 도덕적 책망과 훈육 과정을 무시한다.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 대해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것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신 21:21)고 엄하게 규정해 놓았다.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이 약속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주어진다는 교훈은 지혜에 대한 신앙의 자세와도 연결되어 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잠 10:17)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잠 11:19)

지혜를 따라 사는 삶과 부모의 훈계를 따르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1) 지혜로운 아들 = 여호와를 ()하는 태도를 가진 자
⇒ 아비의 훈계를 듣고 순종
- (2) 거만한 자 =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경멸하기를 ()처럼 하는 자
⇒ 꾸지람을 듣지 않음

2) 의인의 보호와 악인의 패망(13:2~4)

부지런함에 관한 격언(4절)을 중심으로 말에 관해서 2,3절과 5,6절이 배치되어 있다. 6절은 결론적으로 의인은 보호함을 받지만 악인은 패망할 것을 말해준다.

- (1) 입의 열매로 인한 복록과 마음이 꾀사한 자가 당하는 강포(2절)
 - ①입의 열매: ()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 ②꾀사한 자: 불성실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배반과 속임수를 저지르는 자이다.
 - ③강포: 죄가 가득한 폭력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자신의 말에 따른 보응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2) 입을 지키는 자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3절)

**좋은 말과 나쁜 말은 삶과 죽음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그렇기에 입을 제어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의 위험성에 대해 사도 야고보는 마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다고 말했으며, 또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바로 혀라고 했다(약 3:5~6). 시편에서도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 141:3)라고 간구하였다.

- ①입을 지키는 자: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는 자 ⇒ 생명 보전
- ②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말을 내뱉거나 남을 비방, 중상하는 자 ⇒ 멸망
- (3)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4절)

게으른 자가 아무런 실천적 의지 없이 마음으로만 소원할 때에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반면에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욕구와 소원을 채울 수 있다.

- ①게으른 자의 마음: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욕구’
⇒ 번영과 부귀 ⇒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없다.
- ②부지런한 자의 풍족: 바라는 일을 이름 ⇒ 스스로 만족을 경험 ⇒ 꿈을 현실로 만든다.

**영적 부요와 평안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부지런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3) “의(인)”와 “악(인)”의 특징(13:5~6)

- (1) 의인(5절): 좋은 열매를 맺는 입술을 가진 자(2절),
분별 있는 말로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는 자(3절),
부지런함으로 바라는 바를 충족시키는 자(4절)
⇒ 거짓말을 미워한다.

**거짓말: 남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말로 쓰이나, 여기서는 단순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있어서까지 모든 허위와 기만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 ①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찾는다(시 42:1~2).
②거짓 입술을 미워하고 신실함을 기뻐한다(잠 12:22).
(2) 악인(5절): 허영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에 혼란을 조성하는 자
①“행위가 흉악함”: 사람들에게 심한 혐오감과 반발을 유발한다.
②“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개인적인 ()와 공개적인 ()를 뜻한다. ⇒ 하나님의 징계
(3) ‘의’를 보호자로 ‘악’을 패망케 하는 자로 의인화(6절)
①행실이 정직한 자: 죄악으로 인한 갖가지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 ⇒ 보호
②죄인: 악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이기적, 정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 ⇒ 패망

4) 재물에 관한 지혜(13:7~11)

부와 재물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재물에 관해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해 관찰하고 평가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 (1)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 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7절)
①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부를 축적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
②자신을 부유하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궁핍함을 알지 못하는 ()을 지적
③위선자들을 질타하는 내용
(2)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헐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8절)
①부자와 가난한 자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묘사하고 있다.
②“생명의 속전”: 구급 중에 있는 죄인을 석방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수단으로서의 재물의 역할 ⇒ 재물이 있는 자가 가지는 유익
③“헐박을 받을 일이 없음”: 재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온갖 위협이 없다.

**재물이 많은 자는 빠앗길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의지 대상인 재물이 도리어 근심거리가 되는 반면에 가난한 자는 돈이 많아 생기는 염려로부터 자유롭다.

- (3) 의인의 빛과 악인의 등불(9절)

- ①“빛”: 햇빛같이 영속적이고 강렬한 빛을 상징
- ②“등불”: 임의적이고 일시적인 빛을 상징
- ③“환하게 빛나고”, “꺼지느니라”: 의인의 지속적인 ()과 악인의 최종적 ()을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다.
- (4) 교만과 권면을 듣는 자(10절)
 - ①교만: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믿기에 다른 사람의 지적을 들으면 화를 내거나 과격한 언쟁으로 이어진다 ⇨ 다툼만 일어남
 - ②권면을 듣는 자: 자신의 ()를 인정하고 건전한 비판과 질책을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겸손한 자이다. ⇨ 지혜를 얻게 됨
- (5) 망령되어 얻은 것과 손으로 모은 것(11절)
 - ①망령되어 얻음: 헛된 방법, 곧 온갖 부정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재물
⇨ 재물이 줄어듦
 - ②손으로 모음: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재물이 쌓여 가는 모습
⇨ 재물이 늘어남

5) 지혜를 통한 소망의 성취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좌절(13:12~19)

소망이 즉각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과 소원을 성취하는 데서 오는 기쁨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 (1)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12절)
 - ①더디 이루어지는 소망: 간절하게 바라는 바의 성취가 계속 지연되고 그로 인해 지루한 기다림이 기약 없이 지속될 때 마음이 상함 ⇨ 허탈과 무력, 분노의 감정
 - ②성취된 소원: 소원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처럼 영적 또는 육적 생기를 복돋아 준다는 의미이다.

****생명나무:** 상함이나 질병(죽음)과 대조되는 건강(생명)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생명 나무의 실과는 미래를 계획하게 하며, 살아갈 용기를 새롭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한다.

(2) 말씀과 계명(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종말과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에 대한 상급에 관해 언급한다.

- ①말씀을 멸시하는 자 ⇨ 패망(스스로 멸망을 초래)
- ②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 상(궁극적인 상급)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조롱하는 자는 말씀의 책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말씀을 지켜야 할 ()가 있으며, 도리어 영적, 육적 피해함 가운데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

(3) 지혜 있는 자의 교훈(14절)

- ①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일상적인 삶의 지침이 아니라 생(生)과 사(死)를 결정 짓는 중요한 것이다. 지혜를 ‘()’으로 비유하는 것은 가르침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다. 또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 ② “생명의 샘”: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 ③ “사망의 그물”: 미련하고 완악한 자를 사로잡아 죽음으로 인도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올무

(4)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15절)

14절에 이어 지혜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다. 지혜가 분별력과 통찰력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선한 지혜’라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것으로서 사람을 올바른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을 뜻한다.

- ① “선한 지혜” ⇨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한다.
- ② “사악한 자의 길”(거짓을 일삼는 자) ⇨ “험하니라”(평탄치 못한 삶)

(5)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16절)

- 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 ② “슬기로운 자”: 당면한 상황이나 위험 또는 함정을 알고서 신중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현명한 자) ⇨ “지식으로 행한다”: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하는 것
- ③ “미련한 자”: 남을 해치기 위해 그물을 펼쳤는데 도리어 ()가 되어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자신의 미련함이 드러나게 된다.

(6)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17절)

- ① 사자(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악하다는 것은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보낸 자의 의도를 고의로 왜곡한다는 것이다. ⇨ 재앙에 빠지게 됨
- ② 충성된 사신 ⇨ 양약이 됨(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도록 한다)

(7) 훈계를 저버리는 자와 징계를 받는 자(18절)

가난과 수치가 지혜의 훈계를 거부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교정하는 자는 존영을 얻게 된다.

***“존영을 얻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

(8)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19절)

- ① 소원이 성취될 때 전심으로 얻게 되는 기쁨이 있다. 이러한 기쁨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맛볼 수 있다.

**달다: 만족감을 보여주는 단어로 마음의 기쁨을 나타낸다.

- ② 미련한 자들은 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인 줄도 모르고 도리어 떠나는 것을 싫어하는 특징을 기록하고 있다.

6) 지혜자의 복된 미래와 미련한 자의 비참한 종국(13:20~25)

미련한 자를 피하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의인의 재물이 자자손손 전해지는 반면에 악인은 모든 재물을 잃고 만다. 결론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종국을 단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 동행과 사귀(20절)

- 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 깊은 교감 속에서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나누며 지혜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 본을 따름을 뜻한다. ⇨ 지혜를 얻게 됨
 ② “미련한 자와 사귀면” ⇨ 어떤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뜻하는데, 미련한 자의 사고와 행위에 대한 관심과 동참의 의미를 뜻한다.
 ⇨ 해를 받게 됨

**악인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다.(잠 1:10~19, 16:29, 왕하 2:4, 시 106:34~36, 고전 5:6~7 등).

**‘근주자적 근묵자흑’(近朱者赤 近墨者黑): ‘붉은 인주를 가까이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으로 ()을 주시시키는 말이다. 그렇기에 환경을 간파해서는 안 되며, 자만으로 인해 신앙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이다(살전 5:22).

(2) 재앙과 선한 보응(21절)

- ① 다른 사람에게 가했던 악(재앙)이 도리어 그 자신에게 임하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었던 선(선한 보응) 역시 자신에게 임한다는 내용이다.
 ②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타락한 정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해악을 가하는 자는 도리어 그 해악으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된다.

**‘따르고’: 단순히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쫓아서 필시 뒤따라 잡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임을 강조한다.

- ③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베풀었던 선행과 유익들이 자신에게 상급으로 돌아가는 뜻이다.
 (3)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22절)
 ① “선인”: 이타적인 사랑을 기꺼이 행하는 자 ⇨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복을 유산으로 받게 되며 또한 그 유산을 자기의 후손대대로까지 물려줄 수 있게 된다.
 ② “죄인의 재물”: 일시적으로는 그들의 소유가 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의인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악인은 자신의 ()을 채우기 위해 재물을 모으지만, 역설적으로 그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돌아간다.

(4) 밭을 경작하는 자와 가산을 탕진하는 자(23절)

①부지런하게 땀 흘려 일하면 풍성한 소산을 복으로 얻게 된다.

⇒ 이러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땅 위에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②현실 속에서 불의한 압제나 편법으로 인해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가 궁핍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성숙된 신앙인이 될 것을 말한다.

(5)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24절)

①자녀의 죄악을 방관하지 않고 단호한 징계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②“**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릴 적부터 시의적절하게 자녀의 죄악을 ()하고 ()하면서 성장하도록 돕는다.

****징계:** 성경에서는 징계를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징계는 사람의 죄나 허물을 바로잡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렘 30:11). 또한 가정과 사회에 있어서 징계를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었다. 이스라엘의 부친들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종종 채찍을 들었다. 그러나 징계의 밑바탕에는 무엇보다도 애뜻한 ()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할 때 불평과 원망을 일삼게 된다.

③성경적인 양육법의 기초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엄한 징계를 수반한다.

(6)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주리느니라**”(25절)①“**포식**”: 영육간의 만족 ⇒ 때를 따라 먹이며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②“**주리느니라**”: 생존의 위기에 직면 ⇒ 양식의 결핍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14. 의인과 악인의 마음(잠 14:1~35)

의인과 악인의 특성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義)를 언급한 13장과는 달리 논의의 대상을 법정의 영역(5, 25절), 하나님과의 관계(2, 26, 27절),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21, 31절)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의인과 악인의 지혜에 대한 다양한 삶의 특성들을 묘사하고 있는 전반부(1~10절), 의인과 악인의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중반부(11~25절),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지혜는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후반부(26~35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4장은 속담 형식의 격언이 담겨 있는데, 대조적인 진술이 나란히 배열되는 반의적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혜는 어리석음과 대조되고 의로움은 사악함과 대비됨으로써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분명히 부각시키고 있다.

의인과 악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이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1)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특징과 결과(14:1~9)

일반적인 삶과 관련된 부분(1, 3~8절)과 하나님께 대한 자세에서 비롯되는 지혜(2, 9절)를 다루고 있다.

(1)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1절)

①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 제단이나 집, 성읍, 성벽 등을 견고하게 세우는 자

***“집을 세우되”(1절): 가정의 행복을 위해 물질적,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한다는 뜻

②집을 허무는 미련한 여인: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자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파괴 또는 파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

(2) 경건한 자의 생활양식과 불경건한 자의 생활양식(2절)

①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 정직하게 행한다(내적인 의의 정신과 규범 안에서 행동).

②여호와를 경멸하는 자 ⇨ 패역하게 행한다(자신의 정욕에 따라 이리저리 여러 길을 방황).

(3) 미련한 자의 말과 지혜자의 말(3절)

①미련한 자: ()이 결여되어 있어 방탕의 길을 가며, 생명의 가르침과 훈계를 멸시 ⇨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회초리와 같은 거만한 말을 하게 됨)

②지혜로운 자: 필요한 말을 상황에 맞게 사용

⇨ “자기를 보전하느니라”(정직하고 겸손한 말을 통해 쓸데없는 언쟁이나 구설수로부터 자신을 지킴)

(4) 부지런한 수고의 필요성(4절)

①()나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경계하는 내용이다.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일할 것을 당부(전 9:10)

②일하지 않는 자의 공간은 빌 수밖에 없는데 반해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5) 증인(5절)

고대 사회의 법정 제도상 증인의 증언은 재판의 향방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의 하나였다. 따라서 이 증언에 대한 엄중한 명령이 당시의 모세 율법(출 20:16)은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명시되고 있다(마 19:18).

①신실한 증인: 거짓말을 하지 않음

②거짓 증인: 거짓말을 뱉음

***“뺨느니라”: ()을 마치 호홉하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일삼는 것을 뜻하며, 아무런 양식의 가책이나 주저함 없이 또는 무책임하게 발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6)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6절)

① 거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 ⇨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할 지라도 얻지 못함

② 명철한 자: 꾸준히 여호와를 찾음으로써 분별력과 통찰력을 지닌 자
⇨ 지식 얻기가 빠를 뿐만 아니라 쉬움

(7)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7절)

① 미련한 자의 면전에서 멀리 떠날 것을 말한다. 즉 미련한 자에게 가서는 아무런 ()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미련한 자에게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임을 나타낸다.

(8)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8절)

① “슬기로운 자” ⇨ 자기의 ()을 아는 것

**** 슬기로운: ‘분별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소유한 지혜로 말미암아 행할 바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됨**

② “미련한 자” ⇨ 속이는 것

**** 어리석음: 남을 속이는 행악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올 줄 알면서도 그 가증한 행동 을 계속하는 자 ⇨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게 됨**

(9)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9절)

① 심상히 여기다: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찮게 여기며 오히려 즐기는 것을 뜻한다.

② 정직한 자는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멀리하며, 과오를 범했을 시 충분한 보상과 회복을 도모한다.

2) 마음과 지혜의 관계성(14:10~14)

저자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마음’은 인간의 전 존재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생각할 때에, ‘지혜와 마음’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1)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10절)

① “고통은 자기가 알고”: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과 요소가 무엇인지를 자신만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아픔을 함께 나누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②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자신의 깊은 내적 감정에 타인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2)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11절)

① “집”, “장막”: 사람의 거주지나 삶의 터전을 말해준다.

- ② “망하겠고”: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이 멸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흥하리라”: 씩이 트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로서 ()을 상징한다.
- (3) 사망의 길(12절)
- ①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판단 기준이 세속적인 편협하고 왜곡된 인간의 생각을 뜻하는데, 결국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 ② “사망의 길”: 그릇된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들어서면 온갖 타락과 파멸의 왜곡된 길들을 만나게 되어 결국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길
- (4)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13절)
- ①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있지만 그러한 때조차 마음에 정신적 고통이 있음을 의미
- ② 현재의 즐거움 상태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결국은 근심의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
- (5) 마음이 굵은 자(14절)
- 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일삼는 자
- ②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불의로 얻은 소득에 만족하는 모습을 묘사
- ③ “선한 사람”: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대로 사는 자 ⇨ 위로부터 주어지는 복과 소망으로 인한 만족감을 경험

3)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14:15~18)

- (1) 어리석은 자
- ① 온갖 말을 믿음(15절): 자신의 주관적 판단 없이 타인의 말을 분별하지 못한다.
- ② 방자하여 스스로 믿음(16절): 무지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로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
- ③ 노하기를 속히 함(17절): 성미가 급하여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나중에 후회할 미련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
- ④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17절):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악을 도모하는 자 ⇨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 ⑤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음(18절): 자신의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의 의미를 담고 있다.
- (2) 슬기로운 자
- ① 행동을 삼감(15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근거한 확고한 () 소유
- ② 두려워하여 악을 떠남(16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두려워하기에 악에서 돌이키게 됨
- ③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음(18절): 면류관은 영예로움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의 ()를 나타낸다.

4)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의 올바른 처신(14:19~24)

선인(의인)은 다스리는 자나 자선을 베푸는 자가 되는 반면에 불의한 자(악인)는 다스림을 받는 자 또는 동정을 구하거나 구걸하는 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1)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19절)

① “악인”: 하나님 기준으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

⇒ ()을 거스르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

② “선인”: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하는 자 ⇒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반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선인은 하나님과 ()하기 때문에 결국 악인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줌

③ “불의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자 ⇒ 율법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

④ “의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부합되는 도덕적 표준을 지닌 자

**의인의 문: 복수형으로 사용된 단어로 종종 () 장소와 관련된 성문들을 가리킨다.

(2) 가난과 부요에 대한 경계(20절)

①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이며 야비한 속성을 지적하고 있다.

② 가난한 자 ⇒ 사람들이 멀리함(도움 요청을 우려함)

③ 부요한 자 ⇒ 사람들이 가까이함(도움 받기를 기대)

** 인간의 ()을 염두에 두고서, 저자는 가난해지는 것과 부유해지는 것 둘 다를 경계하고 있다.

(3) 죄를 범하는 자와 복이 있는 자(21절)

①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자신의 이기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무가치한 자로 단정하여 멸시하는 자

⇒ ()으로 지음 받은 귀한 존재임을 고려하지 않음

②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인격을 존중, 호의와 친절과 구제를 베푸는 자 ⇒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에서 비롯된 () 정신

(4) 악과 선을 도모하는 자(22절)

① 악을 도모하는 자 ⇒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② 선을 도모하는 자 ⇒ 인자와 진리가 있다(신실하고 자애로운 생활 태도)

(5) 정직하고 근면한 노동(23절)

① “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비록 고통(정신적, 육체적)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된다 ⇒ 이익(대가)

② “입술의 말”: 말만 하고 아무런 육체적 노동도 하지 않는 ()을

뜻한다 ⇨ 빈곤

(6) 재물의 소유(24절)

- ① 지혜로운 자: 정당한 수고의 대가로 얻은 재물을 의롭고 유용하게 사용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영예를 얻게 된다(면류관).
- ② 미련한 자: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유의어의 반복을 통해 미련함의 ()과 ()을 강조하고 있다.

5) 네 부류의 사람들(14:25~32)

(1) 진실한 증인과 거짓된 증인(25절)

- ① 진실한 증인 ⇨ 사람의 생명을 구원
- ② 거짓된 증인 ⇨ 속이는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들이 많았지만, 사형 집행을 위해서는 두세 증인들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했다(신 19:15). 그렇기에 증인의 진실한 증언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었다.**

(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26~27절)

- ①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26절): 안전함과 확신을 느끼게 하는 근원이나 기반
- ②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26절):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
- ③ “생명의 샘이니”(27절): 풍성한 생명의 복
- ④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27절): 대적자들의 음모로부터 피할 길을 주심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28절) ⇨ 고대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특성상 백성의 증가와 번성은 국가의 강대함과 더불어 치리자인 왕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외적 표식이었다(왕상 4:20).**

(3) 인내심이 있는 자와 조급한 자(29~30절)

- 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29절): 평정심 유지, 자신의 감정을 제어 ⇨ 크게 명철하다 말함
- ② “마음이 조급한 자”(29절); ()의 한계에 도달하여 죄를 범함
⇨ 어리석다 말함
- ③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30절): 육체적인 병의 근원이 바로 마음의 근심과 부패에 있음을 암시
- ④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30절):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의 감정에 휩싸일 때 ⇨ 환난과 고통,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된다.

****“뼈”: 때때로 사람의 전인격을 나타낸다(시 6:2).**

(4) 경건한 의인과 학대하는 자(31~32절)

- ①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31절) ⇨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
- ②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32절) ⇨ 주를 공경하는 자

**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격적인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③악인은 환난에 엎드려져도(철저한 파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의인은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을 굳게 간직한다(32절).

6)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삶(14:33~35)

(1)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33절)

- ①“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분별력을 지닌 명철한 자가 자신의 지혜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
- ②“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충동적이기에 겉으로 쉽게 드러나 알려지게 된다는 의미

(2) 공의와 죄(34절)

- ①공의: 나라를 영화롭게 함 ⇨ 하나님의 영적,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하는 민족과 나라들은 흥왕하며 번성한다는 메시지
- ②죄: 백성을 욕되게 함 ⇨ 종교적, 도덕적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의 성향을 가질 때 하나님과 다른 백성들에게 ()를 당하게 된다는 메시지

(3)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와 욕을 끼치는 신하(35절)

- ①한 나라의 흥왕은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의 역량과 ()에 의해 좌우된다.
- ②왕을 보필하여 한 나라의 통치를 돕는 신하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 ③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 왕에게 은총을 받음
욕을 끼치는 신하 ⇨ 진노를 당함

**성도들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선과 악을 평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가정과 국가를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의인의 삶의 결과와 악인의 삶의 결과 도표**

성경구절	의인의 삶의 결과	악인의 삶의 결과
1절	집을 세움	집을 헐어 버림
2절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멸함
5절	참된 말을 함	거짓말을 함
6절	지혜를 잘 얻음	지혜를 얻기가 힘들
9절	은혜가 풍성함	죄를 심상히 여김
11절	집이 흥함	집이 망함
16절	악을 떠남	방자함
25절	사람의 생명을 구원함	남을 속임
29절	노하기를 더디 함	마음이 조급함
30절	마음이 화평함	시기가 있음
31절	궁핍한 자를 붙잡히 여김	가난한 자를 학대함
32절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음	한난에 엎드려짐
35절	왕의 은총을 입음	진노를 당함

15. 의인과 악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 결과(잠 15:1~33)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실상을 소개하는 전반부(1~12절), 삶에 대한 자세를 다루고 있는 중반부(13~26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롯되는 참된 겸손을 보여주는 후반부(27~33절)로 구성되어 있다. 의인과 악인의 비교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본장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서는 의인과 악인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3, 11절).

**의인과 악인의 삶은 말의 사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1, 2, 4, 7, 14, 23절).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징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5, 10, 12, 31~33절).

1) 좋은 말과 나쁜 말(15:1~4)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언어와 관련하여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 (1) 유순한 대답(1절): 부드럽고 자상하며 섬세한 특성 ⇨ ()를 쉬게 한다
- (2) 과격한 말(1절):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말 ⇨ 노를 격동케 한다.
- (3) 지혜 있는 자의 혀(2절): 말의 많고 적음이 아닌 말의 바른(분별력 있는) 사용 여부가 중요 ⇨ 선히 베푼다(어떤 것의 상태나 기능을 적합하게 만든다는 뜻)
- (4) 미련한 자의 입(2절): 자제력을 잃고 쉽게 흥분하는 입
⇨ 개인이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례한 말을 토해 낸다.
- (5) “여호와와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3절):

공간적, 시간적 편재성을 강조 ⇨ 모든 인생을 예외 없이 지켜보며 평가하심을 말해주는 구절

***‘감찰하시다’: 빈틈없이 살피다, 행해진 일을 유심히 보다 ⇨ 모든 인간의 내적, 외적 ()와 ()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음

- (6) 온순한 혀(4절): 치료하는(진정시키는) 혀 ⇨ 생명 나무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치유하는 말, 곧 진리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다)
- (7) 패역한 혀(4절): 거짓말과 왜곡된 말을 하는 혀 ⇨ 마음을 상하게 함(상처를 입힘)

2) 교육의 중요성(15:5~11)

본 단락의 핵심 주제는 교육의 중요성이다. 먼저 아버지를 교사로 그리고 아들을 제자로 언급한 후에(5절), 훈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함에 따른 결과(6~12절)와 외적인 환경보다 내적인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함을(13~19절) 강조한다.

- (1)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5절)
 - ①교육적인 격언으로서 아버지의 훈계에 ()할 것을 당부
 - ②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바울의 권면 참조(엡 6:1, 2)
- (2) 의인의 집(6절): 많은 보물이 존재 ⇨ 합당한 방법으로 꾸준히 모았기에 소유나 재산이 풍족하게 됨
- (3) 악인의 소득(6절): 고통으로 존재 ⇨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재물이기에 고통과 불행의 수단이 됨
- (4) 지혜로운 자의 입술(7절): 지식을 전파 ⇨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
- (5) 미련한 자의 마음(7절): 정함이 없음 ⇨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뱉는다는 의미를 내포
- (6) 악인의 제사(8절): 여호와께서 ()하심
⇨ 기도나 제사도 의로운 행위가 수반되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 (7) 정직한 자의 기도(8절): 여호와께서 ()하심
⇨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며 이웃에게 ()을 행한다는 의미
- (8) 악인의 길(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심 ⇨ 악한 행실과 삶의 방식을 뜻함
- (9) 공의를 따라가는 자(9절): 여호와가 사랑하심
- (10) 도를 배반하는 자(10절): 엄한 징계 ⇨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의 길을 배반하는 것은 모든 율례와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을 의미
- (11) 견책을 싫어하는 자(10절): 죽을 것임 ⇨ 끝까지 진리를 거역하는 완악한 배교자에게 임하는 비극적이며 불가피한 종말
- (12) 스올과 아바돈(11절): ()(새번역) ⇨ 죽은 자의 거처 또는 멸망의 장소를 뜻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없는 완전히 단절된 곳

⇒ 가장 은밀한 곳인 죽음의 영역까지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의미

3) 마음의 평안과 명철에 관한 격언(15:12~17)

- (1) 거만한 자(12절):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지혜자에게 가지도 아니함 ⇒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그 누구도 따라 하지 않는 완고함을 보임
- (2) 마음의 즐거움(13절): 얼굴을 빛나게 함 ⇒ 영육간의 삶에 생기와 평안을 준다
- (3) 마음의 근심(13절): 심령을 상하게 함 ⇒ 고통과 불안을 경험

** ‘마음’: 인간의 내면을 통틀어 나타내는 용어로서 ()의 자리이며(신 6:5), ()의 자리이며(신 29:4), ()의 자리이다(삼하 24:10).

- (4) 명철한 자의 마음(14절): 지식을 요구 ⇒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기에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간구
- (5) 미련한 자의 입(14절): 미련한 것을 즐김 ⇒ 자신의 타락한 본성적 욕구를 채우려 하는 은유적인 표현
- (6) 고난 받는 자(15절): 그 날이 다 험악 ⇒ 죄악으로 인한 내적 불안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을 표현
- (7) 마음이 즐거운 자(15절): 항상 잔치 ⇒ 현실적으로 고난에 시달리더라도 즐거운 마음을 가질 때 외적인 고난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
- (8)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16절) ⇒ 물질적인 보화보다는 신앙에 ()를 둘 것을 가르치는 구절이다.

**물질적 부요함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인 것은 아니며, 가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은 증거도 아니다.

- (9)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17절) ⇒ 일상적인 값싸고 흔한 채소와 특별한 때(잔치)에 사용되던 값비싼 소를 비교 ⇒ 물질에 대한 사랑의 ()을 주지시키고 있다.

4)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상이한 삶의 양식(15:18~24)

- (1) 분을 쉽게 내는 자(18절): 다툼을 일으킴
- (2)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18절): 시비를 그치게 함
- (3) 게으른 자의 길(19절): () ⇒ 가로막는 장애, 특히 가시로 찌르는 고통스러운 장애
- (4) 정직한 자의 길(19절): () ⇒ 단단하게 흙을 돋우어 만든 길 (탄탄하고 장애가 없이 평탄함)

- (5) 지혜로운 아들(20절): 아버를 즐겁게 함
- (6) 미련한 자(20절): 어미를 업신여김
- (7) 무지한 자(21절): 미련한 것을 즐겨 함 ⇨ 육신적, 정욕적인 충동에 따라 행하는 것
- (8) 명철한 자(21절): 그 길을 바르게 함 ⇨ 정도(定道)를 좇아감
- (9) 의논이 없으면(22절): 경영이 무너지고 ⇨ 개인의 아집과 독단의 문제(불신, 불화)
- (10) 지략이 많으면(22절): 경영이 성립 ⇨ 다수의 조언자 필요
- (11)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23절): 어떤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바른 대답의 필요성 강조 ⇨ 성급하지 않고,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당면한 상황에 꼭 필요한 말
- (12)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24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성 강조 ⇨ 세속적인 삶에 집착하며 죄의 성향 속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죽음을 넘어서는 ()을 기대

5) 생명의 길로 행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간구에 귀 기울이심(15:25~29)

- (1)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과부의 지계를 정하심(25절)

***‘지계’: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돌이나 표식을 가리킨다. 성경에서는 이웃한 땅의 지계석을 옮기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경고했다(신 27:17, 욥 24:2).

- (2) 악한 꾀를 미워하시고 선한 말은 정결하다 하심(26절)
- (3) 이익을 탐하는 자 ⇨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함
뇌물을 싫어하는 자 ⇨ 살게 됨(27절)
- (4) 의인의 마음 ⇨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
악인의 입 ⇨ 악을 쏟아냄(28절)
- (5) 여호와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심(29절)
⇨ 주의 깊게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자 의인에게 가지시는 적극적인 ()을 보여줌

6)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15:30~33)

- (1) 눈이 밝은 것 ⇨ 마음을 기쁘게 함
좋은 기별 ⇨ 뼈를 윤택하게 함: 건강과 ()을 상징(30절)
- (2)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31절): ‘생명의 경계’ ()
⇨ 지혜의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게 된다.
- (3)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 ⇨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
견책을 달게 받는 자 ⇨ 지식을 얻게 됨(32절)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 지혜의 훈계
겸손 ⇨ 존귀의 길잡이(33절)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①()
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을 수 있다. ②우리는 ()를 통해서 하나님
의 온전하신 뜻을 배울 수 있다. ③진정한 ()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보편적 삶 속에서의 의인과 악인**

성경구절	의인		악인	
	특성	결과	특성	결과
1절	유순한 대답	분노를 쉬게 함	과격한 말	노를 격동함
2절	지혜로움	지식을 선히 베풀	미련함	미련을 쏟아 버림
4절	온량한 혀	생명 나무	패역한 혀	마음을 상하게 함
5절	슬기로움	경계를 받음	미련함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김
6절	의로움	많은 보물이 있음	악함	소득이 오히려 고통이 됨
7절	지혜로움	지식을 전파함	미련함	마음의 정함이 없음
13절	마음의 즐거움	얼굴을 빛나게 함	마음의 근심	심령을 상하게 함
14절	명철함	지식을 요구함	미련함	미련한 것을 즐김
15절	마음이 즐거움	항상 잔치함	고난 받음	그 날이 다 험악함
18절	노하기를 더디함	시비를 그치게 함	분을 쉽게 냄	다툼을 일으킴
20절	지혜로움	아비를 즐겁게 함	미련함	어미를 업신여김
21절	명철함	길을 바르게 함	무지함	미련한 것을 즐겨함
27절	뇌물을 싫어함	풍성한 삶	이익을 탐함	자기 집을 해롭게 함
28절	의로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함	악함	악을 쏟음
32절	견책을 달게 받음	지식을 얻음	훈계 받기를 싫어함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